

# 제1차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논의 결과

## 1. 개요

- (목적) UN 푸드 정상회의(9월) 前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
- (일시/장소) '21.3.30.(화) 14:00~16:20 / 서울 LW컨벤션(유튜브 생중계)
- (참석) KREI, 농식품부, 농특위, 생산자·소비자단체, 전문가 등 10여명
  - \* 주제 : KREI 원장 / 발제 : 정상회의의 의의(UN 자문위원, 영상), 정상회의·국내논의 개요(농식품부), 국가식량계획(농특위), 농업인·소비자 전문가 인식 설문결과(KREI)
  - \*\* 토론자 : 농축산연합(김광천 사무총장), 한농연(최흥식 수석부회장), 전여농(오순이 정책위원장), 청년농업인연합(강선아 회장), 소비자단체협의회(원영희 회장), 농특위 농수산물분과(곽금순 위원장), 서울대 임정빈 교수,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 등

## 2. 주요 논의 사항

- (공통)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해 ① 식량안보, ② 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, ③ 먹거리 보장의 3가지로 논의 주제를 정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
  - 다만,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계자마다 입장 차이가 있고,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·범국민 참여 요청
    - \* (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)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, 국내 논의 주제로 바람직 (한농연) 다양한 이해관계자(중앙-지자체-시민사회) 간 포괄적 토론 필요, (농축산연합, 임정빈 교수) 교육부, 국방부, 복지부 등도 해당 논의 참여 필요
- (식량안보) 공공급식에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(농축산연합), 농업 생산인력 확보(청년),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지확보 및 농산물 공공수급제\*(전여농) 등 강조
  - \* 쌀·밀·콩·배추·무 등 주요 농산물을 선정하여, 공공비축 실시 및 공공급식에 활용
- (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) 농축산물 저탄소 인증제 내실화 및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(임정빈 교수), 탈탄소 연착륙을 위한 농업인 지원(농축산연합) 요구
- (먹거리 보장) 취약계층 및 가구 단위별 맞춤형 식량 보장(임정빈 교수), 100% 먹거리 보장\* 및 영양 교육(문은숙 대표) 등 언급
  - \* 우리나라 국민 약 10%(500만명)가 먹거리 빈곤층에 해당, 건강 격차 발생(국민건강영양조사)